

교과서 국정화 강행 선언... '역사전쟁' 되레 확산

평가 극과 극... 여야 대치 심화

정치권의 '역사 전쟁'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로 확대되고 있다.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가능한 모든 전력을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교과서 국정 전환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에 나섰고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단체들과 공조,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섰다.

여권은 보수층 사이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큰 박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교과서 국정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정화 추진에 더욱 가속을 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나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교과서가 '친일·독재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새누리당도 이처럼 통합 교과서 추진의 선봉에 나선 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교육 정상화도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역설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교육부 역사 교과서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급습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촛불 시위를 벌이는 데 집중 성토에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길거리에서 촛불시위를 부추기고 국민 분열을 앞장서는 야당 행태에 숨막히는 갑갑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역사교육 정상화" "국민 요구 외면"

새정치, 시민단체 연대 첫 장외집회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중요 정책을 추진할 때 TF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그 조직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혹평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요구인데 그런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이 없었다.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무능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이 없었다"며 "그저 상황 탓, 남 탓이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촛불 문화제에도 동참한다.

이전까지는 의원들의 1인 시위와 서명운동 중심으로 장외 여론전을 벌여왔지만, 쇠고기 촛불 집회 같은 대규모 장외 집회에 시동을 건 것이다.

다만 쇠고기 촛불 집회가 '승리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을 고려로 벌였던 장외 투쟁은 당 지지를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야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 예산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국정교과서 반대, 민생우선' 인쇄물을 노트북에 붙인 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단호한 의지 피력 경제 외치며 예산안·법안 처리 압박

무슨 내용 담았나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며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를 당부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면 돌파=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교과서 관련 부분을 언급할 때 목소리를 높이며 결연한 표정과 단호한 어조로 국정화 논리를 설파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역사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집필 거부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정화 동력을 얻고 여론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대응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실은 국민을 향해 직접적으로 설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규정했다. 또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및 자긍심 확립을 국정화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

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예산안 설명=박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년 일자리 예산 20% 이상 확대 ▲국민안전을 위해 14조8000억원 투입 ▲전체 예산의 30% 이상 복지 분야에 투자 등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공공부문에 노동개혁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면서, 관련해 추진 중인 남은 과제에 대한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나아가 성과가 미진한 금융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주요 법안 처리 당부=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하나가 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외사법, 의료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연대 개혁 마무리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수출부진을 극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열쇠"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의원들 '모니터 시위'로 연설 15분 늦게 시작

시정연설 이모저모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취임 이후 3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오전 9시41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의정실에서 10여분간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비공개로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정부가 교과서 TF를 만들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갔더니 '갑급했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박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오른쪽에 배석한 이병기 비서실장을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내용을 좀 알아보시죠"라고 짧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장에 속속 입장했다. 하지만,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국정화 철회' 등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인쇄물을

본회의장 의석의 컴퓨터 모니터 뒤에 붙이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이에 정의당의 의장은 마이크를 잡고 인쇄물 제거를 요구했으나 야당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예정보다 약 15분 늦게 본회의장 연단에 올랐으며,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기립한 채 박수는 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약 42분에 걸친 연설 동안 몇몇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연설을 마친 뒤 여당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쳤으나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퇴장할 때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거나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먼저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연설 동안 야당 의석에서는 단 한 차례의 박수도 나오지 않았지만 조정태 의원은 박 대통령이 나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쳐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임·퇴장을 포함해 이날 연설에서 모두 56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이는 지난 두 차례의 시정연설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감·사·행」 실천캠페인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작은 다짐
우리 모두 실천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욕설이
나와 친구의 가슴을 멎게 합니다.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듭니다.

친구야
사랑해!

건전한 언어 습관 형성을 위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행」
사랑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연합·광주일보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